

# 잡아함31 수루나경 2

---

날짜: 11월 29th, 2023

출처: <http://www.dhamma.kr/wp/?p=17597>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왕사성의 가란다죽원에 계셨다.

그때 존자 사리불은 기사굴산에 있었다.

그때 수루나라는 장자의 아들은 여러 날을 걸어 기사굴산으로 가서 사리불에게 나아가 엎드려 그 발에 예배하고 물러나 한 쪽에 앉았다.

그때 사리불이 수루나에게 말하였다.

“만일 사문 바라문이 색(色)에 대해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하고, 색의 집착[色集]에 대해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하며, 색의 소멸[色滅]에 대해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하고, 색의 소멸에 이르는 길[色滅道跡]에 대해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한다면, 수루나야, 마땅히 알라. 이런 사문 바라문은 그 때문에 색을 끊을 수 없다.

수(受) · 상(想) · 행(行)도 마찬가지이며, 만일 사문 바라문이 식(識)에 대해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하고, 식의 집착[識集]에 대해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하며, 식의 소멸[識滅]에 대해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하고, 식의 소멸에 이르는 길[識滅道跡]에 대해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 때문에 그들은 식을 끊을 수 없느니라.

수루나야, 그러나 만일 사문 바라문이 색에 대해 사실 그대로

알고, 색의 집착에 대해 사실 그대로 알며, 색의 소멸에 대해 사실 그대로 알고, 색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해 사실 그대로 안다면, 수루나야, 마땅히 알라. 이런 사문 바라문은 그 때문에 색을 끊을 수 있다.

수루나야, 수 · 상 · 행도 마찬가지이며, 만일 사문 바라문이 식에 대해 사실 그대로 알고, 식의 집착에 대해 사실 그대로 알며, 식의 소멸에 대해 사실 그대로 알고, 식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해 사실 그대로 안다면, 수루나야, 마땅히 알라. 이런 사문 바라문은 그 때문에 식을 끊을 수 있느니라.

수루나야, 너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색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만일 무상하다면 그것은 괴로운 것인가?”

“그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만일 색이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라면 그것은 변하고 바뀌는 법이다. 그런데 거룩한 제자가 그런 색에 대해 과연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와 다르다. 이것은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이다’라고 보겠는가?”

“아닙니다.”

“수루나야, 이와 같이 수 · 상 · 행 · 식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만일 무상하다면 그것은 괴로운 것인가?”

“그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만일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라면, 그것은 변하고 바뀌는 법이다. 그런데 거룩한 제자가 그런 수 · 상 · 행 · 식에 대해 과연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와 다르다. 이것은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이다’라고 보겠는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수루나야, 너는 마땅히 ‘색(色)은 과거에 속한 것이건 미래에 속한 것이건 현재에 속한 것이건, 안에 있는 것이건 밖에 있는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아름답건 추하건, 멀리 있는 것이건 가까이 있는 것이건, 그 모든 색은 나도 아니요, 나와 다른 것도 아니며,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도 아니다’고 알아야 하나니, 이것을 사실 그대로 아는 것[如實知]이라 한다. 수루나야, 거룩한 제자는 색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탐욕을 떠나서, 태어남 · 늙음 · 병듦 · 죽음과 근심 · 슬픔 · 괴로움 · 번민에서 해탈하느니라.

수(受) · 상(想) · 행(行)도 마찬가지이며, ‘식(識)은 과거에 속한 것이건 미래에 속한 것이건 현재에 속한 것이건, 안에 있는 것이건 밖에 있는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아름답건 추하건, 멀리 있는 것이건 가까이 있는 것이건, 그 모든 식은 나도 아니요, 나와 다른 것도 아니며,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도 아니다’고 알아야 하나니, 이것을 사실 그대로 아는 것이라 한다.

수루나야, 거룩한 제자는 식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탐욕을 떠나서, 태어남 · 늙음 · 병듦 · 죽음과 근심 · 슬픔 · 괴로움 · 번민에서 해탈하느니라.”

그때 수루나는 사리불의 말을 듣고 기뻐 뛰면서 예배하고 물러갔다.